‘2005 여성특허기술대전’ 시상식 개최

한국라이스텍 윤명희 대표‘ 쌀 저온 저장고 ’대상

지난 7월 22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여성발명협회 주관으로‘ 2005 여성특허기술대전’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과학기술발전과 기술입국을 위한 여성 신기술인을 발굴하고, 여성특허기술의 정보제공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며, 여성발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대전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특허청, 서울특별시, 매일경제신문,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후원하여 열렸다.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9일까지 발명이나 아이디어 창출을 통해 특허기술을 획득, 사업화한 여성들

이참가신청서를제출, 7월12일 심사위원회를거쳐 총28명의수상자들이결정되었다.

영예의대상(산업자원부장관상)에는쌀저온저장고를개발, 사업화한윤명희㈜한국라이스텍대표이사가수상하였고, 황영희㈜네오파워웰빙대표이사와안선희㈜대호에코텍대표이사는각각 ‘수맥파차단제’와 ‘건설폐기물파·분쇄장치’에 대한기술로금상을수상하였다.

이외에도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상인은상에5명의수상자가, 한국발명진흥회회장상, 대한변리사회회장상, 한국특허정보원원장상,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상인동상에총 20명의수상자가선정되었다.

‘쌀저온저장고’에 대한기술로영예의대상을차지한윤명희㈜한국라이스텍대표이사는 ‘최근쌀의소비량이줄고있는데이는시중에그만큼맛있는쌀이줄었기때문이’라며 ‘앞으로질좋은쌀의생산을통해쌀소비시장을변화시켜외국으로즉석맛춤쌀을수출할계획을갖고있다’고밝혔다. 또한 ‘이번대전수상을계기로쌀의맛을살리기위해노력하는이들이있다는것을알리게되어기쁘다’라고전했다.

이번대전을주관한한미영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은 ‘여성발명의활성화를통해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는다양한방안을찾은끝에처음으로여성특허기술대전을개최하게되었다’며 ‘아이디어의보고인일상생활과가장밀접해있는여성들이직장이나가정, 사회생활중에창의력을발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해앞으로도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또한이날대전에참석한김종갑특허청장은격려사를통해 ‘처음으로맞는여성특허기술대전에많은여성들이관심을갖고참여한가운데우수한특허기술을가진많은여성수상자들이배출되게된것을진심으로축하한다’며 ‘앞으로도특허청은이번대전과같은다양한기회를만듦으로써여성발명활동의지원을아끼지않을것을약속했다.

이날시상식에는김종갑특허청장, 민경탁한국발명진흥회상근부회장, 유영기한국특허정보원원장, 박정자한국여성단체협의회부회장, 최금주한국여성경제인협회부회장, 이경란대한변리사회총무이사가참석하여각각의수상자들에게시상하였다.

사진설명
: 최초로열린 ‘2005 여성특허기술대전’영예의수상자들과참석내빈들의모습